



‘도마의 신’ 양학선이 11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 짐네스틱스 센터 경기장에서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별 결승에서 ‘양’을 성공시키고 있다. 양학선은 15.787점을 받아 2위 데니스 아블라진(러시아·15.350점)을 0.437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은 8장 연속촬영 후 레이어 합성. /연합뉴스

‘도마의 신’ 양학선 격이 달랐다



‘어게인 런던 올림픽’...15.787점 금빛 연기 광주시청 최은숙, 에페 단체전서 銀 추가

‘도마의 신(神)’ 광주출신 양학선(21·한국체대)이 제27회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 기계체조 도마 종목별 결승에서 ‘금빛 연기’를 선보였다.

양학선은 10일 러시아 카잔 체조 센터에서 열린 대회 도마 종목별 결승에서 15.787점을 받아 2위 데니스 아블라진(러시아·15.350점)을 0.437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차 시도 때 자신의 독보적인 기술 ‘양학선(도마를 정면으로 짚고 세 바퀴를 도는 기

술)’을 깔끔하게 성공하며 15.97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양학선은 2차 시도에서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앞으로 짚고 세 바퀴를 도는 기술)을 가뿐히 돌아 보이며 15.600점을 받았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한국 체조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은 1년 만에 찾은 국제 종합 대회에서 다시 한번 ‘금빛 착지’에 성공했다.

런던 올림픽 때 은·동메달을 목에 건 데니스 아블라진(러시아), 이고르 라디빌로프(우크라이나)와 함께 경기에 나선 양학선은 이날 결승에서 런던올림픽 때 썼던 기술을

그대로 썼다.

런던올림픽 때도 아블라진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시상대 꼭대기에 선 양학선은 이번에도 아블라진(2위·15.350점)을 0.437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의 기쁨을 누렸다.

양학선은 9월 개최예정인 세계 선수권대회를 위해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 ‘양학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것을 연습했었으나 최근에는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양학선은 “신기술을 연습하다 보니 반 바퀴를 덜 도는 ‘쓰카하라 트리플’이 수월해졌

다”며 “세계대회에는 북한 체조의 간판인 리세광이 나오니, 신기술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 오른 김인규(20·한국체대)는 하산보이 더스마토프(우즈베키스탄)에게 0-3으로 패해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준결승까지 진출한 이상민(22·한국체대)도 동메달을 가져왔다.

유도에서는 남자 60kg급의 김원진(21·웅인대)과 무제한급의 김성민(26·수원시청)이 각각 3, 4루전에서 승리해 2개의 동메달을 가져왔다.

한편 한국은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로 러시아·일본·중국의 뒤를 이어 4위에 올라 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 구옥희 별세

日서 심장마비로



한국 여자골프의 1세대인 구옥희 전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협회장이 지난 10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향년 57세.

KLPGA는 “구 전 회장이 일본 시즈오카현 한 골프장 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인이 국내로 운구되는 대로 장례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은 일본에서 연습 라운드를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숨진 당일에는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고양시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것이 인연이 돼 골프채를 잡은 고인은 사실상 혼자 골프를 배웠다.

1978년 프로테스트를 통과해 같은 해 9

월 처음 열린 여자 프로골프대회인 KLPGA 선수권에서 준우승을 기록했고 1979년 페남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1980년 5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 1981년에도 4승을 거두는 등 국내투어에서 20승을 기록해 국내 1인자로 군림했다. 1983년에는 일본으로 진출해 통산 23승을 올렸다.

특히 1988년 3월에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탠더드 레지스터 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인 우승자 1호로 기록됐다.



동성고 야구, 전국체전 출전 13년만인데

일고에 2대 1 승·광주 대표로

동성고 야구부가 13년 만에 전국체전 무대를 밟는다.

동성고가 1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의 제 64회 전국체전 고등부 3차 예선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광주대표 자격을 얻었다.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에이스 박규민이 승리의 주역이 됐다. 박규민은 9이닝 동안 7개의 안타와 2개의 사사구로 1점을 내줬지만, 140km 중반의 직구와 커브·슬라이더로 8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경기는 6회까지 동성고 우완 박규민과 광주일고 좌완 한두솔의 팽팽한 마운드 싸움이였다.

7회가 승부처였다. 박규민이 선두타자 노

민석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다. 송동욱의 희생번트로 1사 3루, 폭투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선취점을 가져갔다.

하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동성고의 집중력이 발휘됐다. 6회까지 한두솔의 호투에 막혀 단 하나의 안타를 뽑아내는데 그쳤던 동성고가 방건우의 중전안타에 이어 김태선의 우중간을 깨는 2루타로 동점에 성공했다.

광주일고가 정성중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폭투가 나오면서 1사 3루, 5번 김민혁이 고의 사구로 걸어나간 뒤 포수 신범수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동성고가 역전에 성공했다.

박규민은 8-9회 안타를 하나 내주기는 했지만 실점 없이 1점의 승부를 지키며 완투승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최악 투’... 전반기 아쉽게 마무리

애리조나전 5실점, 8승 실패
7승 3패... 평균자책점 3.09

미국 프로야구에 ‘베이브 루스’(Babe Ruth) 열풍을 일으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첫 번째 전반기를 7승 3패, 평균자책점 3.09로 마감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의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최악의 투구로 8승 사냥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홈런을 포함한 7피안타로 5실점하고 다저스가 3-5로 뒤진 6회초 타석에서 대타 칼 크로퍼드를 교체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9회 5-5로 동점을 만들어 다행히 패전은 면했다. 다저스는 결국 14회초 라

미레스와 A.J. 엘리스의 연속타자 홈런으로 7-5로 이겼다.

이로써 앞선 17차례 등판에서 7승 3패를 기록한 류현진의 시즌 8승 도전은 무산됐다. 연속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도 8경기에서 끝났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2.82에서 3.09로 높아졌다. 한 경기 5실점은 4월 2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6이닝 5실점)에 이어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이다.

2월 중순 스프링캠프부터 5개월 가까이 쉬지 않았던 왼손 투수 류현진의 전반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호적이다. 빅리그 신인답지 않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게 중론이다. 연착륙에 성공한 류현진이 후반기에 얼마나 더 진화한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4월 3승, 5월 3승 등 두 달간 6승(2패)을 올리고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더불어 왼

투 펀치 노릇을 했다.

인천 동산고 졸업 후 8년만에 방망이를 잡았음에도 놀라운 타격 실력을 뽐내며 그는 홈런의 제왕 베이브 루스와 자신의 영문 성(Ryu)을 섞은 ‘베이브 류스’라는 애칭도 얻었다.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우완 셸비 밀러와 올해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놓고 경쟁 중이다.

밀러는 9승 6패, 평균자책점 2.92, 탈삼진 112개, 104.2 투구이닝을 기록하고 있다.

116.2이닝을 던진 류현진은 투구 이닝에서만 앞설 뿐 선수, 평균자책점, 탈삼진(93개)에서 밀러에게 모두 뒤진다.

결국 ▲당해 만의 등판에 따른 꾸준한 체력 유지 ▲최대 3시간 이상 나는 미국내 시차 적응 ▲흥(4승 1패, 평균자책점 1.90)과 원정(3승 2패, 평균자책점 4.42) 경기 간의 격차 극복에 따라 류현진의 신인왕 수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